

## News release

스위스리 시그마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4년 한 해동안 전 세계에서 기록적인 숫자의 대형 자연재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대형 재해로 인한 보험손해액은 과거 평균 이하를 기록함

- 2014년 대형 자연재해 및 인재로 인한 총 경제손실액은 약 USD 1,100억
- 2014년 대형 재해로 인한 보험손해액은 약 USD 350억 (최근 10년 기간의 연평균 금액인 USD 640억 대비 감소)
- 2014년 전 세계에서 189건의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 이는 시그마 기록상 가장 높은 수치임
- 2014년에 대형 재해로 인해 12,700명 이상이 사망, 이는 단일 연도에 기록된 가장 낮은 수치들 중 하나임
- 대형 뇌우로 인한 손실 증가세 - 시그마 보고서의 특별 챕터에 세부내역 수록

취리히, 2015년 3월 25일 - 최신 시그마 연구에 의하면 대형 자연재해 및 인재로 인한 전세계 보험손해액은 2014년에 USD 350억에 달했다. 이는 2013년의 USD 440억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며, 최근 10년 기간 평균인 USD 640억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2014년에는 시그마 기록상 최대인 189건의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했으며, 그 결과 전 세계 경제 손실액은 USD 1,100억에 달했다. 대형 재해로 인해 약 12,700명이 사망하였고, 이는 2013년의 27,000명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자 단일 연도에 기록된 수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4년의 모든 대형재해 인한 총 경제적 손실은 USD 1,100억에 달했는데, 이는 2013년의 USD 1,380억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자 최근 10년 기간의 연평균 금액인 USD 2,000억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총 경제적 손실 중에서 USD 1,010억은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었고 대부분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태풍에 기인한 것이었다. 총 보험손해액인 USD 350억 중 USD 280억은 대형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미국, 유럽 및 일본의 날씨 관련 재해가 대부분의 보험손실 초래**  
“대형 재해의 빈도는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한해동안 대형 자연재해 발생수치는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라고 스위스재보험 수석 이코노미스트 Kurt Karl은 말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일련의 대형 폭풍우들이 미국 및 유럽에서 상당 규모의 손실을 유발했다. 5월에는 미국에서 우박을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Lucia Bevere, Zurich  
Telephone +41 43 285 8306

Thomas Holzheu, Armonk  
Telephone +1 914 828 6502

Clarence Wong, Hong Kong  
Telephone +852 2582 5644

Swiss Re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www.swissre.com](http://www.swissre.com)  
 @SwissRe

동반한 심한 폭풍이 빈발함에 따라 작년 한해 중 최대 규모의 보험손실 이벤트가 발생했으며, 손해액은 USD 29 억에 달했다. 그 다음달 유럽에서는, 대규모 저기압 세력 Eta 가 프랑스와 벨기에 일부 지역에 대규모의 우박을, 독일에서 강풍을 유발했다. 총 보험손해액은 USD 22 억에 달했는데, 이로써 Eta 는 시그마 기록상 유럽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손실을 유발한 우박 재해로 기록되었다.

혹독했던 미국과 일본의 겨울 날씨도 2014 년 보험손해액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에서는 폭설 및 장기간에 걸친 폭한과 함께 다수의 폭풍이 발생했다. 미국에서 전체 겨울 폭풍으로 인한 보험손해액은 USD 24 억에 달했는데, 이는 최근 10 년 평균치의 두 배를 초과하는 수치이다. 최대 규모의 재해는 17 개 주에 영향을 미친 (남쪽으로는 플로리다 주까지 눈이 내림) 1 월의 폭풍이었는데, 그 결과 총 보험손해액이 USD 17 억에 달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2 월 중순의 혹독한 일시적 한파로 인해 최근 수십 년 이래 최대 규모의 폭설이 내렸으며, 그 결과 26 명이 사망하고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주로 도로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총 보험손실은 USD 25 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4 년에도 북대서양 지역은 비교적 잠잠한 허리케인 시즌을 보냈으며, 대규모 허리케인이 9 년 연속으로 미국에 상륙하지 않았다. 이는 작년의 전반적인 평균 이하 보험손해액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태평양 지역에는 고유명칭을 가진 20 개의 폭풍들이 상륙했는데, 이는 1992 년 이후로 가장 많은 숫자이다. 이들 중에서 9 월에 멕시코의 바하 캘리포니아에 상륙한 허리케인 Odile 이 최대 규모의 손실을 가져왔다. 이 지역은 수많은 호텔과 상업용 부동산이 있는 여행지로서 보험침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다. 보험손해액은 USD 17 억이었으며, 그 결과 Odile 은 2005 년에 USD 21 억의 보험손해액을 기록했던 허리케인 Wilma 이후로 멕시코 사상 두 번째 규모의 자연재해가 되었다.

### **보험 담보의 부재가 여전히 남아있음**

충분한 보험담보의 부재는 여전히 수많은 국가들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5 월에는 대규모 저기압 Yvette 가 세르비아, 보스니아 및 크로아티아에 심한 폭우를 유발했는데, 일부 지역에는 지난 120 년간 최대 규모의 폭우가 내렸다. 몇몇 댐들이 붕괴되었으며 그에 따른 홍수와 잔해들이 주택, 인프라 및 농작물을 파괴했다. 사망자 수는 82 명이었는데, 이는 2014 년 유럽 지역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최대 규모의 인명손실이었다. 그리고, 총 손실액은 USD 30 억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산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이탈리아에도 작년에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 일련의 갑작스런 홍수로 인해 총 경제적 손실이 USD 10 억을 초과했으며, 대부분은 보험 미가입 자산과 관련된 것이었다.

미국에도 보험침투율이 낮은 지역들이 있다. 작년 8월에, 사우스나파(South Napa)에서의 지진으로 인해 총 USD 7 억에 달하는 건물 및 재고 손실이 발생했는데, 특히 현지 와인업계의 수많은 와인 보관시설의 피해가 컸다. 하지만, 보험손실은 USD 1.6 억에 불과했다. “지진위험에 대한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 주의 보험 가입률은 상업용 건물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대형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일부 지역의 보험손해액 매우 낮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공동 연구저자 Lucia Bevere 는 말한다.

### 대규모 폭풍우로 인해 손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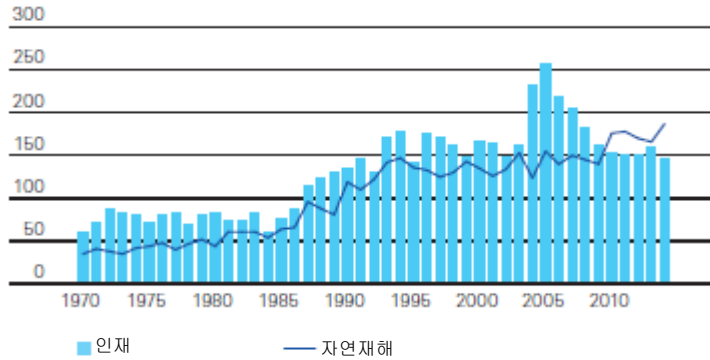
시그마 보고서에는, 대규모 뇌우에 (이는 대규모 대류폭풍이라고도 불림) 대한 특별 챕터가 포함되어 있다.<sup>1</sup> 대규모 대류폭풍으로 인한 총 비용 및 보험손실은 지난 25 년간 증가세를 나타내왔다. 이는 주로, 폭풍(특히 토네이도)의 빈도와 보험 침투율이 가장 높은 미국, 그리고 우박동반 폭풍 및 갑작스런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유럽에서의 손실증가로 인한 것이다.

대규모 대류폭풍으로 인한 글로벌 보험손실은 1990 년에서 2014 년까지의 기간 동안 연평균 9%의 비율로 상승했다.<sup>2</sup> 동일 기간 동안, 모든 기후이벤트로 인한 보험손실은 연평균 6.6%의 비율로 상승했다. 미국에만 한정해서 볼 때, 대규모 대류폭풍으로 인한 보험손실은 1990 년에서 2014 년까지의 기간 동안 연평균 USD 80 억에 달했다. 그리고, 2008 년부터 이러한 손실은 매년 USD 100 억을 초과했으며, 이에는 시그마 기록 사상 네 번째로 높은 USD 130 억의 보험손실을 기록했던 2014 년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발생 재해 수, 1970 - 2014

<sup>1</sup> 심한 대류폭풍에는, 토네이도, 우박, 우레, 폭우 및 갑작스런 홍수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손실발생이 예상되는 한계치를 (일반적으로, 시간당 90 km/26마일의 바람, 그리고/또는 미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들의 경우 직경 2 cm 이상, 그리고 미국 단위 기준으로는 1인치 이상의 우박) 바탕으로 폭풍을 “대규모”로 분류한다.

<sup>2</sup> 단기적 변동을 완화하고 장기적 추세를 강조하기 위해, 연간 성장률은 1986-1990년 및 2010-2014년의 평균을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출처: Swiss Re Economic Research & Consulting 및 Cat Perils.

표 1: 2014 년 및 2013 년의 총 경제적 손실 및 보험손실

USD 십억 (2014 년 가격 기준)			연간 변동	10 년 평균
<b>총 경제적 손실</b>	110	138	-20%	200
자연재해	101	129	-21%	188
인재	9	9	-2%	12
<b>보험손실</b>	35	44	-22%	64
자연재해	28	37	-24%	57
인재	7	8	-11%	6

출처: Swiss Re Economic Research & Consulting 및 Cat Perils.

표 2: 2014 년의 최대 보험손실 재해 (USD 십억)

□	발생월	보험손실 <sup>1</sup>	총 손실	이벤트	국가
1	5월	2.9	3.7	뇌우, 우박 <sup>2</sup>	미국
2	2월	2.5	5.0	눈보라 <sup>3</sup>	일본
3	6월	2.2	3.1	폭풍우 및 우박동반 폭풍 Eta <sup>4</sup>	프랑스, 독일, 벨기에
4	9월	1.7	3.3	허리케인 Odile <sup>5</sup>	멕시코
5	1월	1.7	2.5	겨울 폭풍 <sup>2</sup>	미국
6	6월	1.3	1.7	뇌우, 토네이도 <sup>2</sup>	미국
7	4월	1.2	1.9	뇌우, 토네이도 <sup>2</sup>	미국
8	4월	1.1	1.6	뇌우, 토네이도 <sup>2</sup>	미국

주: (1) 재물 손괴 및 기업휴지 (배상책임 및 생명보험 제외).

출처: (2) Property Claims Services 에 의해 허락된 미국 자연재해 수치; (3) The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및 Swiss Re Cat Perils 추정치; (4) 보험협회 및 Swiss Re Cat Perils 추정치; (5) Mexican Association of Insurance Institutions 및 Swiss Re Cat Perils 추정치.

표 3: 2014 년의 보험손해액 및 사상자에 대한 시그마 한계치

보험손해액 한계치 (클레임, USD 백만)	
해상 재난	19.6
항공	39.3
기타 손실	48.8
<b>또는 총 경제적 손실 한계치</b>	
	97.6
<b>또는 사상자</b>	
사망 또는 행방불명	20
부상	50
주거지 없음	2000

출처: Swiss Re Economic Research & Consulting 및 Cat Perils.